

Country Profile

인도

2006년 6월 15일

유 민 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mwryu@kiep.go.kr]

주요 이슈

- 2005/06 회계연도 기간 중 8.4% 경제성장률 기록
 - 인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
 - 한·인도 CEPA의 영향
-

I. 일반개황	3
II. 주요 경제지표	4
1. 최근 경제동향	4
2. 향후 경제전망	4
3. 대외경제관계	5
가. 품목별 수출입	5
나. 국가별 수출입	6
다. 외국인직접투자	8
III. 경제현안	9
1. 최근 경제동향	9
가. 경제성장	9
나. 수출입	11
2. 주요 경제현안	12
가. 국내경제 현안	12
나. 대외경제 현안	19
3. 향후 경제전망	21
IV. 한국과의 경제관계	22
1. 교역	22
2. 투자	25
3. 주요 통상현안	28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 3,287,590 km²
- 인 구 : 10억 5,000만 명(2004년 9월말)
- 기 후 : 열대몬순
- 시 간 대 : GMT보다 5시간 30분 빠름

■ 행 정

- 공식국명 : 인도공화국(The Republic of India)
- 수 도 : 뉴델리(New Delhi)
- 행정조직 : 28개 주, 7개 직할시(Union Territories)

■ 정 치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대 통 령 : 압둘 카람(A.P.J. Abdul Kalam, 2002년 7월 취임, 임기 5년)
- 의회형태 : 양원제(상원 245석, 하원 552석*, 2004년 4월 14대 총선 개최)
 - * 주와 직할지에서 각각 530명, 20명을 선거를 통해 뽑고, Anglo-Indian Community 에서 최대 2명까지 대통령이 지명 가능
- 총 리 : 만모한 싱(Manmohan Singh, 2004년 5월 취임)
- 주요정당 : 국민회의당(Congress, 집권당, 20개 정당과 UPA 연립정부 구성), 인도인민당(BJP, 제1야당), 공산당(CPI-M, 연정 참가), 사마지와디당(SP, 연정 참가) 등

■ 사회·문화

- 민 족 :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 언 어 : 힌두어외 14개 공용어, 영어(상용어)
- 종 교 : 힌두교(82.4%)와 회교(11.7%), 기독교(2.3%), 시크교(2.0%), 불교(0.8%), 자이나교(0.4%)등
- 공 휴 일 : 공화국의 날(1.26), 독립기념일(8.15), 성탄절(12.25)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 1973년 12월
- 협정체결 : 무역협정(1974년), 문화협정(1974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76년), 이종과세 방지협정(1985년), 항공협정(1992년), 투자보장협정(1996년)
- 취항도시 : 항공기 서울 - 뉴델리(주 3회), 서울 - 뭄바이(주 3회)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구 분	단 위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인구	백 만 명	1,012	1,030	1,046	1,062	1,080	1,097
경상 GDP	억 달 러	4,773	4,855	5,076	5,477	6,915	-
1인당 경상 GDP	달 러	478	473	485	516	610	-
실질 GDP 증가율	%	4.4	5.8	4.0	8.5	6.9	8.4
소비자물가상승률 ¹⁾	%	3.8	3.7	4.1	3.5	4.2	5.0
재정적자(GDP비중)	%	△5.5	△5.1	△5.4	△4.6	△4.2	-
경상수지	억 달 러	△27	34	63	106	△64	21.6
무역수지	억 달 러	△125	△116	△107	△155	△273	△395
수출	억 달 러	455	447	538	647	793	1007
수입	억 달 러	579	563	645	802	1,066	1,402
외환보유고 ²⁾	억 달 러	396	510	719	1,130	1,415	1,516
환율(연평균)	루피/달러	45.7	47.7	48.4	46.0	45.3	44.1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이고, 주요지표의 연도는 회계연도 기준

1) 공업노동자 연평균 물가(1982=100), 2) 금과 SDR 포함, 기간 말 기준

자료 :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Survey, 각년호.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Monthly Economic Report,

Reserve Bank of India, Annual Report, 각년호.

2. 향후 경제전망

구 분	2006/07		2007/08	
	EIU	Global Insight	EIU	Global Insight
실질 GDP 성장률(%)	7.2	6.8	6.5	6.6
소비자물가상승률(%)	4.8	4.8	3.6	4.7
경상수지(십억 달러)	-24.6 (GDP대비 -1.6%)	GDP대비 -2.4%	-30.2 (GDP대비 -2.4%)	GDP대비 -2.8%
환율 (연평균, 루피/달러)	43.00	45.01	42.50	46.17

자료 : EIU, India Country Report, March 2006.

Global Insight, Asia and Oceania Monthly Outlook, March 2006.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액 증감율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¹⁾	품 목	2004-2005 (1분기~3분기) ²⁾	2005-2006 (1분기~3분기)	증감율 ³⁾ (%)	비중(%)
1	석유제품	4,953.78	8,093.61	63.38	11.21
2	일반기계류	10,168.59	13,288.78	30.68	18.40
3	섬유류	8,909.76	10,799.64	21.21	14.95
4	화학제품	8,994.66	10,788.29	19.94	14.94
5	보석류	9,430.21	11,128.63	18.01	15.41

주 : 1) 순위는 2005-06(1분기~3분기) 증감율 기준임.

2) 인도 회계연도의 1분기는 4~6월, 2분기는 7~9월, 3분기는 10~12월임.

3)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자료 : 인도통계청 CSO(http://mospi.nic.in/mospi_press_releases.htm)

■ 품목별 수입액 증감율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¹⁾	품 목	2004-2005 (1분기~3분기) ²⁾	2005-2006 (1분기~3분기)	증감율 ³⁾ (%)	비중(%)
1	기계류(전자전기제외)	7,507.64	11,125.50	48.19	10.66
2	석유제품	21,422.92	31,476.94	46.93	30.17
3	전자제품	7,171.25	9,485.35	32.27	9.09
4	유기화학물	3,899.12	5,023.48	28.84	4.81
5	금, 은	7,356.98	8,510.25	15.68	8.16

주 : 1) 순위는 2005-06(1분기~3분기) 증감율 기준임.

2) 인도 회계연도의 1분기는 4~6월, 2분기는 7~9월, 3분기는 10~12월임.

3)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자료 : 인도통계청 CSO(http://mospi.nic.in/mospi_press_releases.htm)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액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¹⁾	품 목	2004-2005 (1분기~3분기) ²⁾	2005-2006 (1분기~3분기)	증감율 ³⁾ (%)	비중(%)
1	미국	9,863.57	12,408.99	25.81	17.18
2	U.A.E	4,915.23	5,917.75	20.40	8.19
3	중국	2,972.88	4,337.98	45.92	6.01
4	싱가포르	2,652.32	4,122.80	55.44	5.71
5	영국	2,500.47	3,741.25	49.62	5.18
6	홍콩	2,508.48	3,213.66	28.11	4.45
7	독일	1,890.82	2,452.61	29.71	3.40
8	벨기에	1,695.18	1,940.99	14.50	2.69
9	네덜란드	1,085.96	1,855.10	70.83	2.57
10	이탈리아	1,481.60	1,683.91	13.66	2.33
11	일본	1,397.70	1,677.56	20.02	2.32
12	스리랑카	1,006.45	1,505.66	49.60	2.08
13	프랑스	1,138.59	1,433.31	25.88	1.98
14	사우디아라비아	1,011.58	1,290.35	27.56	1.79
15	남아공	708.26	1,156.35	63.27	1.60
16	한국	701.91	1,153.19	64.29	1.60
17	방글라데시	1,101.94	1,151.09	4.46	1.59
18	스페인	925.81	1,111.87	20.10	1.54
19	인도네시아	883.43	931.77	5.47	1.29
20	이스라엘	713.55	844.01	18.28	1.17

주 : 1) 순위는 2005-06(1분기~3분기) 증감율 기준임.

2) 인도 회계연도의 1분기는 4~6월, 2분기는 7~9월, 3분기는 10~12월임.

3)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자료 : 인도통계청 CSO(http://mospi.nic.in/mospi_press_releases.htm)

■ 국가별 수입액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¹⁾	품 목	2004-2005 (1분기~3분기) ²⁾	2005-2006 (1분기~3분기)	증감율 ³⁾ (%)	비중(%)
1	중국	4,834.86	7,725.89	59.80	7.41
2	미국	4,533.12	5,806.37	28.09	5.57
3	스위스	3,829.84	4,971.21	29.80	4.76
4	독일	2,763.73	4,291.39	55.28	4.11
5	벨기에	3,186.63	3,755.07	17.84	3.60
6	호주	2,628.30	3,433.33	30.63	3.29
7	U.A.E	2,985.01	3,330.86	11.59	3.19
8	한국	2,343.94	3,234.55	38.00	3.10
9	영국	2,280.20	3,005.30	31.80	2.88
10	일본	2,156.61	2,598.92	20.51	2.49
11	싱가포르	1,846.94	2,350.27	27.25	2.25
12	인도네시아	1,804.96	2,082.00	15.35	2.00
13	남아공	1,422.61	1,837.50	29.16	1.76
14	말레이시아	1,649.94	1,766.77	7.08	1.69
15	러시아	927.63	1,616.70	74.28	1.55
16	홍콩	1,207.30	1,574.96	30.45	1.51
17	이탈리아	953.59	1,341.95	40.73	1.29
18	프랑스	969.05	1,274.26	31.50	1.22
19	사우디아라비아	939.97	1,156.06	22.99	1.11
20	태국	580.60	906.12	56.07	0.87

주 : 1) 순위는 2005-06(1분기~3분기) 증감율 기준임.

2) 인도 회계연도의 1분기는 4~6월, 2분기는 7~9월, 3분기는 10~12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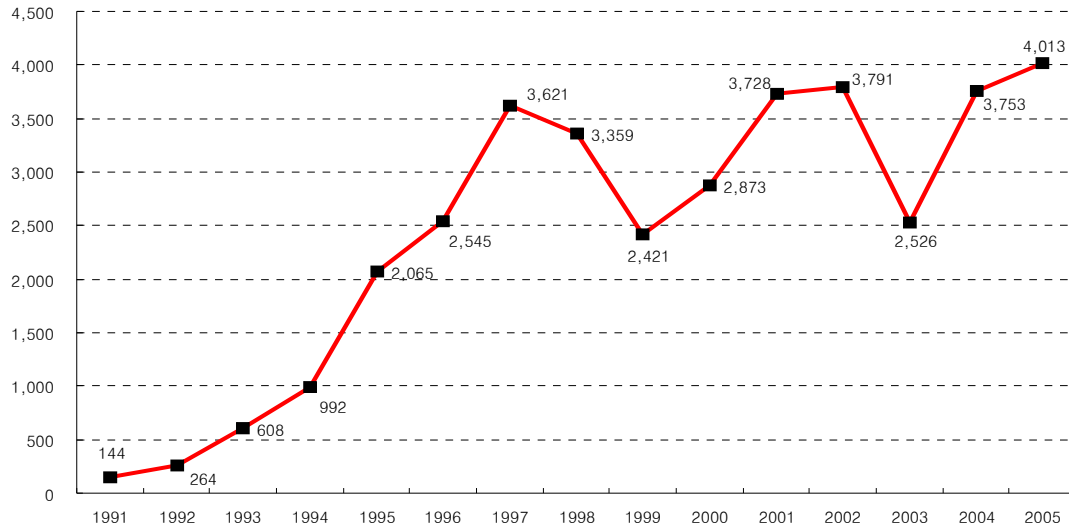
3)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자료 : 인도통계청 CSO(http://mospi.nic.in/mospi_press_releases.htm)

다. 외국인직접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미화 백만 달러)



주 : 2005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SIA, SIA Newsletter, December 2005.

■ 국별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실투자액 기준)

(단위 : 백만 루피)

순 위	국 가 명	1991-2002	2003	2004	2005	합 계	(백만 달러)
1	모리셔스	308,226	25,859	46,162	87,690	467,937	(10,976)
2	미국	131,649	19,040	29,792	19,747	200,228	(4,892)
3	네덜란드	45,002	11,619	22,779	5,173	84,574	(1,985)
4	일본	69,320	4,344	5,337	5,361	84,362	(2,014)
5	영국	54,922	8,629	6,585	9,486	79,623	(1,910)
6	독일	39,842	3,625	7,275	3,334	54,075	(1,331)
7	싱가포르	21,277	1,680	2,855	13,140	38,952	(940)
8	프랑스	24,307	1,643	5,289	1,060	32,298	(768)
9	한국	23,700	1,129	1,227	2,933	28,988	(749)
전체투자액		1,050,092	116,172	172,665	177,125	1,516,054	(36,704)

자료 :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SIA, SIA Newsletter, December 2005.

■ 업종별 FDI 현황(실투자액 기준 : 1991.8~2005.9. 누계)

(단위 : 백만 루피)

분 야	1991-2002	2003	2004	2005	누계액 (백만 달러)		비중(%)
전기·전자·소프트웨어	110,909	13,550	39,667	44,851	208,977	(4,862)	13.2
운송	98,763	15,134	8,064	8,767	130,728	(3,124)	8.5
서비스(금융 등)	65,939	13,904	11,456	28,515	119,813	(2,908)	7.9
통신	98,994	7,273	6,088	8,405	120,760	(2,863)	7.8
연료(전력, 정유 등)	89,762	7,419	7,160	2,443	106,784	(2,514)	6.9
화학(비료 제외)	53,994	2,849	8,677	8,919	74,438	(1,887)	5.1
식품가공	38,228	3,076	3,690	1,776	46,771	(1,173)	3.2
의약 및 조제	16,894	2,793	15,711	4,972	40,370	(946)	2.6
시멘트및석고제품	12,167	440	7	19,674	32,289	(746)	2.0
금속	10,591	1,455	8,584	6,164	26,793	(624)	1.7
컨설팅서비스	4,355	2,480	11,844	1,514	20,193	(442)	1.2

자료 :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SIA, SIA Newsletter, December 2005.

III. 경제 현안

1. 최근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

■ 2005년도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8.4%경제성장 달성

- 지난 5월 31일 인도 중앙통계국(CSO)은 인도 경제가 2005/06 회계연도(이하 2005년도)기간 중에 8.4%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최근 3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8.5%, 7.5%, 8.4%의 높은 성장수준을 유지한 것임.
- 특히, 분기 성장률의 면에서 4/4분기(2006년 1~3월) 성장률이 9.3%에 달하여, 2000/01년

이래 지난 6년간 실적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건설업, 서비스업이 경제성장 견인

- 농업, 광업 및 채굴업 등 1차 산업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5.5%와 3.0%의 저조한 성장을 보인 반면, 건설업이 12.0% 성장하고 교역, 호텔, 운송, 통신 산업이 12.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서비스업 전체 10.9% 성장하여 인도의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음.

<표 1> 산업별 생산 추이

(단위 : 천만 루피, %)

구 분	GDP								GDP 증감율 ²⁾			
년 도	2004/05				2005/06				2005/06			
분 야	1분기 ¹⁾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농업 (임업및수산업포함)	117,804	93,249	159,270	127,027	121,804	96,961	163,829	134,010	3.4	4.0	2.9	5.5
광업 및 채굴업	12,392	12,204	13,503	14,497	12,771	11,890	13,497	14,931	3.1	-2.6	0.0	3.0
제조업	83,286	88,162	92,153	97,222	92,230	95,318	99,767	105,871	10.7	8.1	8.3	8.9
전기,가스및용수공급	13,010	13,335	13,276	13,476	13,970	13,688	13,937	14,293	7.4	2.6	5.0	6.1
건설	35,937	37,028	41,476	41,480	40,401	41,592	46,256	46,463	12.4	12.3	11.5	12.0
서비스업	292,646	302,828	325,889	352,522	321,298	333,202	356,576	390,784	9.8	10.0	9.4	10.9
교역,호텔,운송,통신	138,391	141,202	161,165	169,357	154,641	156,721	177,562	191,284	11.7	11.0	10.2	12.9
금융,보험,부동산 및기타영업서비스	77,245	77,505	81,120	84,684	84,020	85,661	88,347	93,553	8.8	10.5	8.9	10.5
단체및개인서비스	77,010	84,121	83,604	98,481	82,637	90,820	90,667	105,947	7.3	8.0	8.4	7.6
산업 총생산	555,075	546,807	645,567	646,223	602,474	592,651	693,864	706,351	8.5	8.4	7.5	9.3

주 : 1) 인도 회계연도의 1분기는 4~6월, 2분기는 7~9월, 3분기는 10~12월임.

2)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자료 : 인도통계청 CSO(http://mospi.nic.in/mospi_press_releases.htm)

나. 수출입

■ 인도의 수출은 2005년 4월~12월중 27.9%의 높은 증가율 기록함.

- 인도의 수출은 2004년도 중 지난 30년간 최고수준인 24.1% 증가하여 793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05년 4월~12월중에도 2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722.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5년 4월~12월 중 수출은 석유제품(63%), 일반기계류(31%)의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 석유제품 수출(2004년도 비중 8.6%)은 인도의 석유정제시설 확충과 국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04년도 90.3% 급증하였으나, 2005년도 1/4분기~3/4분기에는 63%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됨.
- 인도 제2의 수출품인 보석류 수출(2004년도 비중 17.3%)도 2004년도 29.6%의 증가율이 2005년도 1/4분기~3/4분기(2005년도 1분기~3분기 비중 15.4%) 18% 증가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증가율 순위가 5위로 하락함.
- 또한 인도 수출에서 섬유류 수출(04~05년 비중 5.8%) 증가세는 2004년도 4.6% 감소하였지만 2005년도 1/4분기~3/4분기(2005년도 1분기~3분기 비중 15%)에 21.2%의 큰 증가를 보임.

■ 국가별 수출동향

- 인도 최대의 수출대상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은 2004년도 1/4분기~3/4분기 19.3%에서 2005년도 1/4분기~3/4분기 25.8%로 증가함.
- 이와 더불어 2, 3, 4위 수출대상국인 U.A.E와 중국, 싱가포르로의 수출 증가율은 2004년 1/4분기~3/4분기 각각 46.7%, 61.0%, 94.4%에서 2005년 1/4분기~3/4분기 20.4%, 45.9%, 55.4%로 감소함.

■ 인도의 수입은 2005년 4월~12월 중 36.8% 증가

- 인도의 수입은 2004년도 중 지난 1980년대 이래 최고수준인 37.0% 증가하여 1,071억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05년 4월~12월중에도 비슷한 수준인 36.8%의 증가율을 보여 1,04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늘어 지난 2004년도 2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5년도 4~12월중에도 32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2004년도 비중 27.9%)은 2004년도 45.1% 증가에 이어 2005년도 (2005년도 1/4분기~3/4분기 비중 30.2%) 2005년도 1/4분기~3/4분기 중 46.9% 증가함.
- 금(2004년도 비중 6.9%) 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수요 증가 및 보석류 및 금·은 수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2005년도 1/4분기~3/4분기(2005년도 1/4분기~3/4분기 비중 8.2%) 증감율이 15.7% 증가하고 비중 또한 증가함.

- 전자제품 수입(2004년도 비중 9.1%)은 2004년도 29.8% 증가에 이어 2005년도(2005년도 1/4분기~3/4분기 비중 9.1%) 2005년도 1/4분기~3/4분기 중 32.3% 증가함.

■ 국가별 수입동향

- 중국(2004년도 최대 수입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2004년도 68.5%에서 2005년도 1/4분기~3/4분기(2005년도 1/4분기~3/4분기 비중 7.4%) 59.8%로 다소 둔화함.
- 미국(2004년도 2위)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2004년도 25.0%, 2005년도 1/4분기~3/4분기(2005년도 1/4분기~3/4분기 비중 5.6%) 28.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스위스(2004년도 3위)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2004년도 75.6%, 2005년도 1/4분기~3/4분기(2005년도 1/4분기~3/4분기 비중 4.76%) 29.8%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 주요 경제현안

가. 국내경제 현안

1) 인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인도경제는 상품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2004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음.

- 인도경제는 2003년 무역수지 13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경상수지는 10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04년에 수출 740억 달러, 수입 959억 달러, 2005년 수출 878억 달러, 수입 1,270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각각 219억 달러와 39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 적자가 GDP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적자폭이 확대되는 데 반해 무역외수지는 점점 흑자 증가폭이 감소하여 인도경제는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1~03년 각각 34억 달러, 63억 달러, 105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에서 2004년 63억 달러, 2005년 112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표 2> 인도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상품수출		상품수입		무역수지		경상수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1995	31,239	22.4	37,957	27.9	-6,719	-	-5,563	-
1996	33,737	8.0	43,789	15.4	-10,052	-49.6	-5,956	-7.1
1997	35,702	5.8	45,730	4.4	-10,028	0.2	-2,965	50.2
1998	34,076	-4.6	44,828	-2.0	-10,752	7.2	-6,904	-132.8
1999	36,302	6.5	44,587	-0.5	-8,285	22.9	-2,844	58.8
2000	42,602	17.4	50,820	14.0	-8,218	0.8	-2,666	6.3
2001	44,106	3.5	49,598	-2.4	-5,492	33.2	3,400	227.5
2002	48,726	10.5	55,736	12.4	-7,010	-27.6	6,345	86.6
2003	56,330	15.6	70,241	26.0	-13,910	-98.4	10,561	66.4
2004	74,062	31.5	95,908	36.5	-21,846	-57.1	-6,360	-160.2
2005	87,849	18.6	126,978	32.4	-39,130	-79.1	-11,215	-76.3

출처 : Global Insight (<http://www.globalinsight.com>)

■ 특히 인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2004년 37억 달러를 기록하고 2005년 11월까지 40억 달러가 유입되는 등 외국인투자로 인한 인도의 외환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2003년 25억 달러, 2004년 37억 달러, 2005년 1~11월 동안 40억 달러를 기록함.

- 외국인직접투자자와 외환시장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은 2003년 1,035억 달러, 2004년 1,312억 달러, 2005년 9월까지 1,438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경상수지의 주요 항목인 서비스 수출입수지와 이전수지는 2004년 4~12월 각각 205억 달러와 144억 달러에서 2005년 같은 기간 280억 달러와 150억 달러로 증가세가 감소하여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음.

-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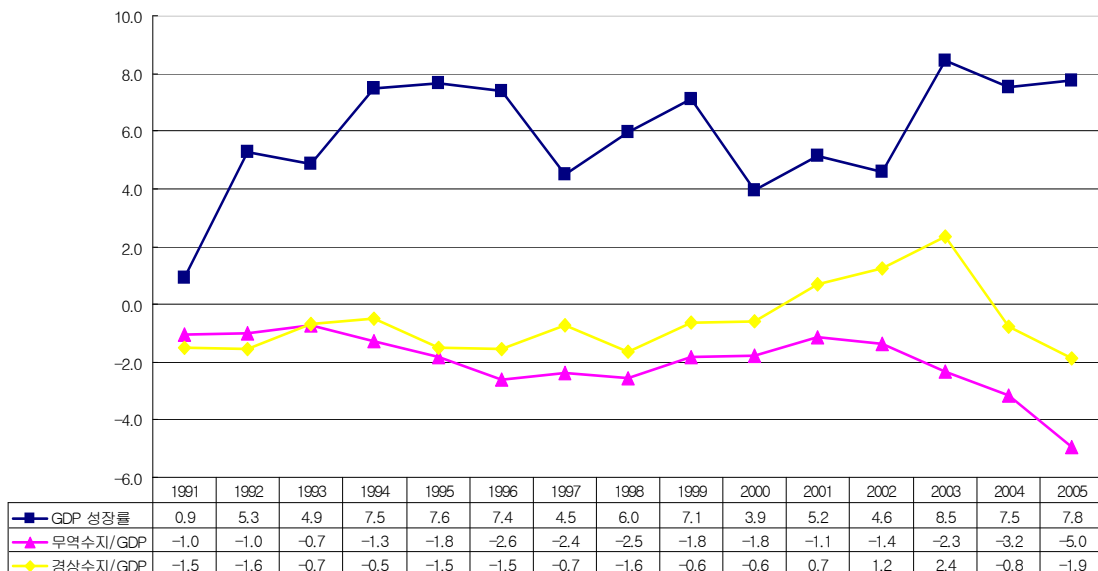
■ 인도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상품수입의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됨.

- 제조업보다는 건설업, 무역 등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인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인도 산업구조의 특성상 경제 전체의 성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인도의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적자가 확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인도 GDP 성장률과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GDP 비중

(단위 : %)



출처 : Global Insight (<http://www.globalinsight.com>)

■ 최근 국제원유가 상승 또한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음.

- 인도는 원유소비의 60~7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도의 POL(Petroleum, Oil and Lubricants) 수입규모는 수요 증대 및 원유가격 상승으로 1970년에는 1억 8천만 달러, 1980년에는 66억 5천 달러, 2003년에는 205억 달러 규모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POL 수입은 인도의 총수출액 대비 1970년에는 12%, 1980년에는 25%였으나, 최근에는 총수출액대비 26~30%에 육박함.
- 이러한 원유수입액 증가는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6%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경우 앞으로 20년 후에는 석유부문 소비가 현재의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원유수입의존도가 92%까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으

로, 원유가격 상승은 경상수지 적자는 물론 인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증가 및 원유가상승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인도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인도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명백한 해결책이 아직 인도정부로부터 제시되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인도경제 영향 및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

2) 인도 좌파연합 지방선거 대응

■ 5월 10일 실시된 인도 지방선거 결과 집권당인 국민의회당¹⁾은 대부분 지역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반면 좌파정당은 남부 및 웨스트 벵갈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승하였음.

- 집권당인 국민의회당은 타밀나두주 지역구와 소니아간디 집권연정(UPA) 의장 재선거구에 서만 승리하고 북부 아삼주와 폰디체리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
- 한편 좌파정당은 남부 케랄라주 선거에서 총 140개 의석 중 98석을 차지하였으며, 웨스트 벵갈지역에서도 총 294개 의석 중 235석을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승하였음.

■ 이번 선거결과는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국민의회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결과로 해석됨.

- 사타람 예추리 인도 공산당 대표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집권연정이 잘하는 것은 오직 공산당을 압박한 것뿐이며, 농민 등 대부분의 국민들을 제외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집권당을 평가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함.
- 소니아 간디 역시 “이번 지방선거는 현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비난할 정도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좌파정당들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현 집권당의 급진적인 개혁 및 개방정책에 대해 더욱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지방선거 이후 농민 및 빈민층을 지지하는 좌파정당의 세력은 더욱 힘을 얻게 됨으로써 지역구 세력을 팽창해 나갈 것이고 이에 따라 집권당과의 대립구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및 각종 개혁정책 추진에도 많은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현 정부의 개혁 및 개방정책은 쉽게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 네루가 이끌던 국민의회당(National Congress)은 1947년 인도 독립시부터 반세기 동안 인도를 통치했다. 1998년 대선에서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BJP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NDA 연합에 패하였으나, 2004년 공산당(CPI(M)) 및 군소정당을 규합하여 재집권에 성공했다. 현재 총리는 국민의회당의 Manmohan Singh이며, 네루 집안의 후계자인 Sonia Gandhi가 당수로서 실질적인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 반면 2005년 9월부터 경제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신 공산주의자들인 인도 마르크스주의자 공산당(CPI(M))²⁾들도 이번선거에서 기대이상의 지지를 받은 만큼 기존의 경제개발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향후 콜카타 신 공항의 민영화 등 예정된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좌파공산 정당간에는 정치 강령에 대한 확고한 차이를 보이면서 일반 좌파연합(CPI)과 마르크스주의 공산당(CPI(M))간의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현 정부의 개혁 및 개방정책에 대한 좌파공산 정당간의 찬성과 반대의 대립구도는 인도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경제특구활성화 법령 발효

- 인도 정부는 2월 10월 지난해 6월 제정된 경제특구활성화법(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의 발효를 공표하였음.
- 경제특구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입주기업에게는 수출의무 대신 5년내 외화순취득(positive net foreign exchange earning) 의무만 부과하고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 수입 시 관세 면제함.
- 생산제품은 관세납부 후 내국세 영역에 판매 가능
- 소득세를 최초 5년간 100% 면제, 다음 5년간 50% 감면, 그 다음 5년간 수출 재투자이윤에 대해 50% 감면
- 제조업분야 100% 외국인투자 자동 승인 / 영세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면제
- 경제특구활성화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SEZ 개발, 운영, 유지 절차를 단순화하고 SEZ 및 SEZ 내 기업 설치 시 각종 승인의 단일 창구화 함
- SEZ 입주기업 활동 관련 서류의 최소화 및 자율증명 / 은행보증 요구 폐지
- SEZ 최소 면적기준 제정
 - 일반 SEZ는 100ha, 다수 상품 제조 SEZ는 1,000ha, 서비스 SEZ는 100ha 등
 - 보석류, IT, BT 분야 SEZ는 10ha

■ 인도 경제특구 현황 및 실적

- 2006년 2월 10일 기준으로 승인된 SEZ는 모두 117개(이 중 51개는 공식 승인, 66개는 원칙적 승인)이나 가동 중인 SEZ는 15개에 불과함. 가동 중인 15개 SEZ중 8개는 2000년 이전

2) 1930년대 결성된 인도의 공산당은 1964년부터 마르크스주의자 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 CPI(M))과 인도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 CPI)을 중심으로 양분되었다.

수출가공구 (Export Processing Zone)에서 전환된 것이고, 7개(04년 3개, 05년 4개)만이 새로이 SEZ로 설치된 것임.

<표 4>가동 중인 SEZ 현황

SEZ () : 인도 州	개발자	입주기업	가동 시기	면적 (에이커)
SEEPZ(웨스트벵갈)	중앙정부	전자, 보석류	1973-74 (EPZ)	100
Kandla(구자라트)	중앙정부	업종 무제한	1965 (EPZ)	1,000
Cochin(케랄라)	중앙정부	업종 무제한	N.A. (EPZ)	N.A.
Madras(타밀나두)	중앙정부	업종 무제한	1984 (EPZ)	262
Visakhapatnam (안드라프라데쉬)	중앙정부	업종 무제한	1989 (EPZ)	370
Falta(웨스트벵갈)	중앙정부	업종 무제한	1984 (EPZ)	280
Noida(우타르프라데쉬)	중앙정부	업종 무제한	1985 (EPZ)	310
Surat(구자라트)	Diamond and Gem Development orporation Limited	업종 무제한	N.A. (EPZ)	N.A.
Manikanchan (웨스트벵갈)	West Bengal Industrial Corporation	보석류	2004	5
Jaipur(라자스탄)	Rajasthan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보석류	2004	110
Indore(마드야프라데쉬)	M.P.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업종 무제한	2004	2,600
Salt Lake Electronic City (웨스트벵갈)	M/s Wipro Ltd.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2005	16
Mahindra City (타밀나두)	M/s Mahindra Industrial Park Ltd.	IT, 하드웨어, 생물정보과학	2005	665
Mahindra City (타밀나두)	M/s Mahindra Industrial Park Ltd.	의류, 패션 액세서리	2005	86
Jodhpur(라자스탄)	RIICO	수공예	2005	180

- 현재 SEZ에는 948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약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음.
- SEZ로부터의 수출은 2004년도 중 40억 달러(인도 전체 수출 792억 달러의 5% 약간 상회)로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으며, 2005년 4-12월 중 수출은 35억 달러를 기록했음.

4) 유통시장 부분 개방

- 인도정부는 2006년 1월 24일 단일 브랜드(single brand)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외국인 및 외국계 기업들의 지분 소유를 51%까지 허용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방침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외국인 소매업자들은 인도 국내총생산의 10%로 농업부문(24%)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매시장에서 이전의 법인 및 프랜차이즈 형태로 제한되어 있던 투자 운영방식에서 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 특히 단일브랜드 투자 완화조치에 따라 다중 브랜드(multiple brand)를 보유하고 있는 다수 다국적 기업들이 단일 브랜드화한 고급 제품 소매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정부는 유통업 분야를 개방함으로써 인도산 제품을 다국적 유통업체를 통해 전세계로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도 기대됨.
 - 인도에서 외국인은 도매 유통이나 현지법인과의 합작을 통한 소매 유통업 진출이 가능하며, 현재 인도에 조직적인 유통은 5% 정도에 그쳐 발전의 여지가 큼.
 - 이에 따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확실한 인도의 소매업 부문에 대한 외국 주요 유통업체들의 관심과 진출방식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최근 3억 명으로 추정되는 인도 중산층 소비자 계층(10억 5,000만 인도 인구 중 30%)의 현대적인 소매체인과 대형상점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비자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구매 양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5년간 매년 10%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 동 조치로 외국계 소매업들의 인도시장 진출 기회는 더욱 폭 넓게 열렸지만, 여전히 인도작파 정당들의 반대로 인해 투자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지난 2004년말 그동안 외국인투자대상에서 제외했던 소매 유통업 분야의 개방을 예고했으며, 영세상인 계층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공산당 등의 반대로 동 분야 개방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음.
 - 또한 소매망 확대로 서비스와 가격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인도에 주로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소매업에 의존하고 있는 삼성 및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

나. 대외경제 현안

1) 미국 및 주요 선진국과의 대외 통상외교 강화

■ 美-印 핵협정 체결

- 미국은 NPT 비가입국인 인도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고 핵기술 개발을 승인하였음.
- 구체적으로 핵협정은 인도가 핵 프로그램을 민간용(전력생산)과 군수용으로 분리하고 민간용 원자로 14개를 개방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도록 한다는 것과 이러한 조치의 대가로 미국이 인도에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연료 및 기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통상협력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Trade) 발표함.

- 부시 美대통령과 싱(Singh) 인도 총리는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통상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양국 정상은 2006년 말까지 WTO Doha Development Agenda(DDA) 이행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농업 협상의 세 가지 핵심사항인 국내보조, 수출경쟁, 시장접근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필요함에 합의.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 시장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 기타 협력사항

- 그 밖에 미국은 오는 2008년으로 예정된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발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양국간 투자와 통상, 국방, 에너지, 우주여행, 농업, 보건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기로 함.
- 지난해 268억 달러였던 교역규모를 3년내 500억 달러로 확대하는데 합의했으며, 특히 미국은 농약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난 1989년부터 금지한 인도산 망고의 수입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함.
- 한편 부시 대통령은 미국내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 기업에 대한 아웃소싱(outsourcing)을 경쟁원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한편 지난 1, 2월중 사우디와 프랑스 정상도 각각 인도를 방문하여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에 합의하는 등 인도의 對선진국 외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사우디와 인도는 지난 1월 22일 압둘라 국왕의 인도 방문시 전략적 에너지 협력, 테러방지, 이종과제 방지, 투자 촉진, 정보통신, 농업, 생명과학 그리고 에너지 기술 분야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특히 사우디가 인도에서 석유정제, 판매 그리고 보관 부문에 투자하는 것에도 양국이 합의하였음.
-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2월 1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다수 경제인을 동반한 인도 방문기간 중에 인도와 공동 민간 핵 협력을 위한 협정에 체결하는 한편 민간항공기를 공급하

기로 약속했음.

2) 남아시아 FTA 발족

■ 2006년 1월 1일부로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출범

- 남아시아 7개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방글라데시)을 회원국으로 둔 SAARC가 2006년 1월 1일 자유무역지대(South Asian Free Trade Area) 출범을 선포하였음.

※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는 남아시아 국가간 협력 증진을 위해 1985년 8월에 창립된 지역협력체로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방글라데시가 회원국으로 참여중이며, 아프가니스탄은 가입 예정임.

- 2004년 1월 SAARC 회원국 정상들은 2006년부터 10년간 두 단계에 걸친 관세인하를 통해 관세를 0~5%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남아시아경제공동체를 창설한다는 목표에 합의하였음.
- 이를 위해 다년간 전문가 회의를 통해 SAFTA 발족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원산지 규정,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등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SAFTA가 발족되었음.
- 아직 관계당국의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는 민감품목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SAFTA에 합류할 예정임.

■ SAFTA 관세인하율은 협정문 7조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국 중 비최빈개도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과 최빈개도국(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을 구분하여 2006년 1월 발효시점으로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이행기간을 차등 설정하였음.

-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인도·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네팔·부탄·몰디브(이상 최빈개도국)의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차별화된 관세인하율 및 스케줄에 따라 현재 25~30% 수준인 관세를 0~5%로 인하토록 할 예정
 - 1단계 : 협정이 발효되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인도·파키스탄, 스리랑카는 20%, 나머지 최빈개도국은 30%로 관세 인하
 - 2단계 : 인도·파키스탄은 2013년, 스리랑카는 2014년까지, 최빈개도국은 2016년까지 0~5% 수준으로 관세 인하

■ 원산지 규정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비최빈개도국에서 40%, 최빈개도국에서 30%이상을 충족시킨 제품에 특혜관세를 적용기로 함.

- 그러나 특정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역내에서 발생하고 최종 제조국에서 2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특혜를 부여

■ SAFTA 발효에 따라 역내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효과 기대

- 인도의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를 비롯한 SAFTA 회원국들은 SAFTA의 발효로 남아시아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2년 이내에 역내 무역이 현재의 70억불 수준에서 140억불 수준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역내 투자 유치, 개별회원국 경제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와 같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교역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SAFTA의 주된 수혜국은 인도가 될 전망이다.

- 과다한 예외품목분류, 보상제도 시행의 어려움, ASEAN 자유무역협정(AFTA) 보다 늦은 일정 및 낮은 개방수준 등의 문제가 상존함에 따라 SAFTA로 인한 교역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회원국간 역내 교역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부탄을 제외한 여타 5개국과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가 SAFTA 발효의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어서, 최악의 경우 일부 회원국의 SAFTA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향후 경제전망

■ 인도 경제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통화기금(IMF)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경제는 2006년 7.3%, 2007년 7.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2003년에 인도 경제성장을 예측한 것보다 높은 수치로 2006~07년 동안 인도의 경제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음.

■ 하지만 인도의 제조업분야가 전체 인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상품에 대한 초과소비는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 즉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인도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수입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수입증가는 즉각적으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외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인도경제의 급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민간소비 등 소비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인도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06년 1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2005년 동기대비 326% 증가하여 6억 5천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6-07년 10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외환유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역외수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한동안 국제원유가격 변동이 인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인도정부는 원유가 가격 상승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 원유가격 통제 외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내원유 수요증대로 인한 원유수입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현재까지 세계적인 경제전망기관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향후 인도경제는 매년 5%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안정세, 제조업부문의 건실한 성장, 건축 및 IT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도의 약진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은 높음.

IV. 한국과의 경제관계

1. 교역

- 한국과 인도의 교역은 지난 10여 년간 20~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 2003년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넘어선 뒤, 2004년 55억 달러, 2005년 67억 달러, 2006년 1~3월까지 2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2006년 1~3월까지 한국통계 기준, 인도는 한국의 8위 수출국(2005년까지는 11위), 21위 수입국(2005년까지는 26위)임(16위 교역상대국).
 - o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전체수출(2,844억 달러)의 1.6%, 대인도 수입은 전체수입(2,612억 달러)의 0.8%로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2005년 한국의 對인도 수출은 휴대폰 등의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45억 9,800만 달러를 기록
 - 이에 따라 인도가 한국 전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의 0.9%에서 1.6%로 높아졌으며, 국가별 수출 비중 순위도 24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2004/05년도 인도통계 기준으로 한국은 인도의 21위 수출국이며 9위 수입국임(12위 교역상대국).

<표 5>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3월)
수 출	금 액	1,150	1,668	1,362	1,326	1,408	1,384	2,853	3,632	4,598	1,374
	증가율	-2.3	45	-18.3	-2.7	6.2	-1.7	106.1	27.3	26.6	42.2
수 입	금 액	939	606	768	985	1,106	1,249	1,233	1,850	2,112	675
	증가율	-3.7	-35.4	26.6	28.2	12.3	13	-1.3	50.1	14.2	69.2
총교역량	금 액	2,090	2,274	2,130	2,311	2,513	2,633	4,086	5,482	6,710	2,049
무역수지	금 액	211	1,062	594	341	302	135	1,620	1,782	2,486	699

자료: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세계무역통계

■ 한국의 對인도 수출은 제조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음.

- 한국의 對인도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며 2005년 기준 한국의 對인도 수출 중 전기전자제품이 34.7%, 기계류 27.4%, 철강금속 15%, 화공품 12.7%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제품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 한국의 對인도 주요 수출품은 송수신기기,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기타 철강 및 금속 등

- 수출 증가율이 높은 제품은 공산물 86.2%, 화공제품 53.3%, 철강금속 50%, 전자전기 26.2%, 기타 잡제품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철강금속제품의 수출증가율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의 對한국 수출은 광산물과 화공품으로 집중되고 있음.

- 인도의 對한국 수출은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섬유류, 농림수산물 등이 84%, 2005년에는 80% 차지하는 등 농수산물과 섬유 및 원부자재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인도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경질석유 및 조제품, 광산물, 섬유류, 화공품과 향생물질 등

- 한편, 인도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을 보면 2004년 농림수산물 23%, 광산물 32.2%, 섬유류 16.8% 철강금속 11.8%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5년에는 농림수산물 비중이 7.9%, 섬유류 12.2% 등 대폭 감소한 반면 광산업 47.6%, 철강금속 13.3%, 기계류 4.6% 등은 비중이 증가하였음.
- 특히 농림수산물이 2004년 148.4% 증가율에서 2005년 60.8%의 감소율을 보여 농림수산물의 對인도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광산물은 69%, 플라스틱 및 화공품은 25%, 18% 각각 증가하였으며, 철강, 기계, 전기전자제품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정 품목에 대한 한국의 對인도 수출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한국의 전체 수출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화공품, 컴퓨터 등 5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품목의 對인도 수출 비중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음.

- 對인도 수출에 있어 특정품목의 수출편중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따라서 對인도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6> 한·인도 업종별 수출액 내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명	2005년			2006년(1~3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 계		4,598	26.6	100.0	1,374	42.2	100.0
1	무선통신기기	1,170	40.1	25.4	479	107	34.9
2	자동차부품	427	14.6	9.3	127	43.6	9.2
3	철강판	361	79.1	7.9	119	81.5	8.7
4	석유제품	221	94.7	4.8	66	80.9	4.8
5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71	140.8	1.5	45	373.8	3.3
6	합성수지	225	76.3	4.9	43	-5.5	3.1
7	기타기계류	79	38.5	1.7	35	371.8	2.5
8	종이제품	72	105.7	1.6	32	221.6	2.3
9	원동기및펌프	83	-0.1	1.8	23	-5.1	1.7
10	기타석유화학제품	66	45	1.4	20	40.5	1.5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세계무역통계

<표 7> 한·인도 업종별 수입액 내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명	2005년			2006년(1~3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 계		2,112	14.2	100.0	675	69.2	100.0
1	석유제품	803	84.7	38.0	200	151.1	29.6
2	아연광	37	49.3	1.8	90	855.7	13.3
3	식물성물질	110	-69.2	5.2	66	44.7	9.8
4	천연섬유사	222	-20.3	10.5	61	11.6	9.0
5	철광	49	-46.3	2.3	25	25.5	3.7
6	합금철선철및고철	109	48.4	5.2	20	-2.3	3.0
7	정밀화학원료	66	15.9	3.1	20	9.7	3.0
8	동제품	41	49.9	1.9	18	51.3	2.7
9	원동기및펌프	48	149.8	2.3	13	26.3	1.9
10	농약및의약품	38	8.5	1.8	12	52.8	1.8

주 : 품목분류는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세계무역통계

2. 투자

■ 한국의 對인도 투자액은 2005년 5월말 기준 인도 정부가 실투자액을 기준으로 발표한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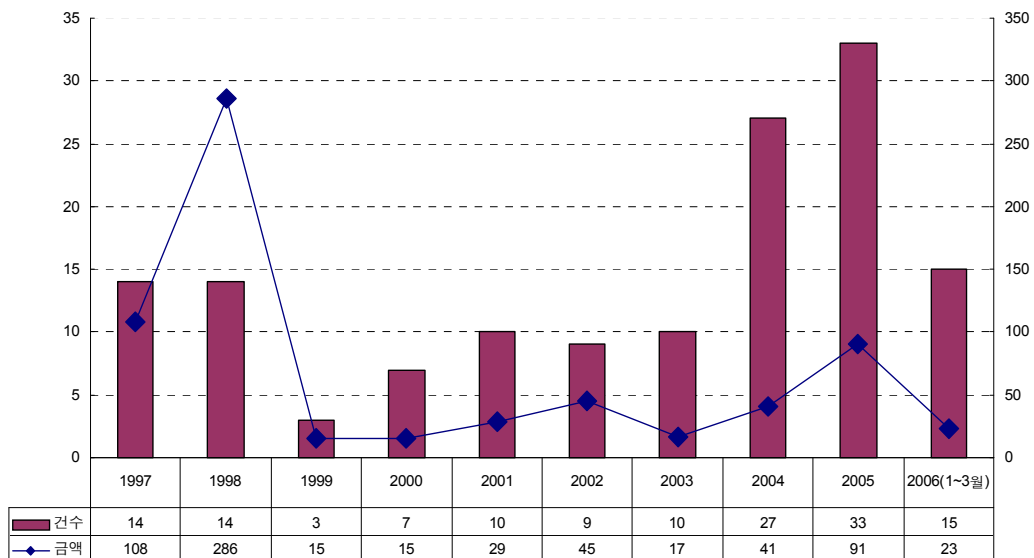
- 싱가포르, 프랑스 등이 2000년 이후 꾸준히 對인도 투자를 늘림에 따라 한국은 2002년보다 두 계단 아래로 밀려나게 되었음.

■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2006년 3월말 현재 총 191건 8억 8,681만 달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총 해외투자 29,359건 606억 달러에 비할 때 건수로는 0.6%, 금액으로는 1.5%에 불과한 수준임.

- 그러나 2004년과 2005년 들어 對인도 투자는 전년대비 2.4배와 2.2배 각각 증가해 우리 기업들의 對인도 투자가 높아지고 있어, 최근 경제의 고성장과 더불어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2006년 3월까지 투자건수 및 금액(신고 기준)의 누적 합계가 각각 224건, 15.3억 달러임.
- 2006년 3월말 누적기준 한국의 對인도 투자건수 및 금액(실행기준)은 각각 191건, 8억 6,681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그림 2> 연도별 대인도 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건수)



주 : 2006년은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 한국 기업들의 對인도 투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의 주력 진출분야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이 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과 건설업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 광업과 부동산업은 각각 신고건수만 1건에 66만 7천 달러와 93만 달러였으며, 실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부동산업은 최근 인도에 상가 및 주거지 개발붐이 조성되는 한편 인도 정부가 부동산 부문 외국인 투자규정을 완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유력 투자분야가 될 수 있을 것임.

<표 8> 업종별 대인도 직접투자 현황(2006년 3월말 기준 누적치)

(단위 : 천 달러, 건수)

업 종		총 계	농림어업	광 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부동산업
신고 건수	건수	224	2	1	157	10	15	4	2	5	27	1
	비율	100.0	0.9	0.4	70.1	4.5	6.7	1.8	0.9	2.2	12.1	0.4
신고 금액	금액	1,528,299	1,044	667	1,329,942	5,761	131,245	6,499	385	604	51,222	930
	비율	100.0	0.1	0.0	87.0	0.4	8.6	0.4	0.0	0.0	3.4	0.1
투자 건수	건수	191	2	0	141	9	11	2	2	4	20	0
	비율	100.0	1.0	0.0	73.8	4.7	5.8	1.0	1.0	2.1	10.5	0.0
투자 금액	금액	866,806	1,043	0	750,405	2,639	107,709	401	385	213	24,011	0
	비율	100.0	0.1	0.0	86.6	0.3	12.4	0.0	0.0	0.0	2.8	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6년 3월 현재 대인도 투자는 대기업이 50건 8억 720만 달러로 건수의 26.2%, 금액으로는 91%를 차지하고 있음.
- 대기업의 건당 투자액은 1,644만 달러로 우리나라 건당 평균 206만 달러의 8배에 달함
-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총 107건 7,134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수로는 56%, 금액으로는 8% 수준으로 매우 미미함.
- 이는 우리기업들이 인도시장 진출시 기업경영활동 여건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인도의 대한민국 투자는 2000~2003년 기간 중 70~9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4년 3월 TATA 그룹의 대우 상용차 인수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인도는 30위 권의 투자국으로 부상했음.

<표 9> 인도의 對한국 직접투자추이(신고수리 기준)

(단위 : 천 달러, 천수)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건 수	4	3	11	13	20	16	16	30	68	19	219
금 액	267	139	815	702	857	767	697	52,647	3,736	1,053	63,733

주 : 2006년은 1월부터 3월까지이며, 합계는 1962년부터 누적수치.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통계

- 2004년 인도의 對한국 투자는 동년 3월 인도 TATA 자동차의 대우상용차 인수계약 체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5,200만 달러의 사상최고 규모를 기록하였음.
- 이처럼 최근 인도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IT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출이 빠르게 이루어짐으로써 양국간 투자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3. 주요 통상현안

가. 한·인도 CEPA의 영향

- 한국과 인도는 2005년 공동연구(JSG)에서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07년 말까지를 목표시한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 양국이 한-인도 CEPA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에게 많은 실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먼저 인도의 경우, 한국과의 CEPA는 인도 최초의 OECD 가입 국가와의 FTA를 의미하며 이는 인도내 FTA 대의명분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 인도는 1991년 이후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한 성장잠재력 실현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등과 FTA를 추진하였음.
 - 하지만 인도와 비슷한 제조업 기반을 지닌 태국과의 FTA는 2004년 9월부터 조기 시행(Early Harvest Scheme)되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對태국 무역수지 적자 심화 및 다국적 기업의 태국 이전 등 다양한 역효과를 낳았음.
 - 이에 따라 인도는 기존 상품 중심의 FTA 틀을 벗어나 한국과는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두 번째는 동방정책에 의한 동아시아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성공 여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과의 FTA 추진성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특히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이러한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위한 발판을 놓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 인도는 한국기업들이 인도거대시장을 선점한다는 위기감을 조성하여, 투자유인 및 기술이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과의 FTA 협상을 적극 유도하고, 중국과는 될 수 있는 한 제조업분야에서 최대한 많은 양허품목을 얻어낸다는 FTA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한-인도 CEPA는 인도의 동방외교정책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세 번째는 서비스 및 잠재적 교역분야의 확대임.

- 인도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전문 인력이동, 과학기술분야 협력 등을 중심으로 CEPA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한국의 제조업에 대한 교역여건의 상대적 열위를 만회하기 위해 양국간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의한 높은 잠재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이 얻는 실리는 우선 거대 잠재시장의 선점기회를 들 수 있음.

- 인도는 현재 11억 인구, 세계 7번째 광활한 국토와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 보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구매력 기준 세계 4대 GDP를 가진 거대시장임.
- 또한 인도의 제조업 부문도 서비스 부문과 더불어 고도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중국에 필적하는 세계의 생산기지로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두 번째는 남아시아 허브인 인도의 기지 확보에 의한 우리 경제외교 외연 확대임.

-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선도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남아 지역 경제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지닌 국가임.
- 인도와의 FTA 추진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남아시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지역으로의 진출을 가능케 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인도와의 CEPA 추진은 남아시아지역에서 경제 및 통상 전반에 걸친 협력 기본틀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외교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세 번째는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임.

- 소니, 도요타, 엔론(Enron) 등 선진 다국적기업들이 실패한 인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동차 2위, 다양한 전자제품부문에서 1,2위를 다투는 등 대대적인 성과를 올려 한국기술 및 경영능력의 우수성을 드높이고 있음.
- 하지만 최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급속히 인도시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한-인도 CEPA가 체결되면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부품 및 소재 가격 인하에 따른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나. 아·태 무역협정(舊방콕협정)과 GSTP를 통한 협력 강화

- 아시아지역 유일의 경제협력체인 방콕협정³⁾은 지난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아·태 무역협정(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로 특혜관세 품목 확대를 의결했음.

- 이에 따라 협정 체결국인 한국과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6개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현재의 223개에서 3221개로 대폭 확대하게 됨.
- 현재 회원국간에 특정 품목(총 101개)에 대하여 양허관세(關稅讓許)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 양허관세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은 18개임.
- 한국은 7월부터 중국과의 수출 품목 1,068개에 대한 관세를 26.7% 인하하고, 608개의 수입 품목의 관세도 35.7% 인하하기로 결정함.

- 아·태 무역협정과 GSTP의 양허품목을 확대하여 인도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對인도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교역구조를 확립해야 함.

- 방콕협정은 거대시장 인도와 중국을 포괄하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로 최근 동 협정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한국의 對인도 무역수지는 1992년 이후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인도정부의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 따라서 아·태 무역협정과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의 양허품목을 확대함으로써 對인도 수입을 확대
 - 현재 인도는 의류, 농차, 제지류 등 HS 10단위 기준 한국의 1,204개 일반양허 품목에 대하여 평균 30%의 특혜관세를 부여받고 있으며, 한국은 HS 6단위 기준 인도의 396개 일반양허품목에 대하여 평균 20%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 방콕협정이 일부 품목의 관세양허 수준에서 벗어나 양허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한편 중국, 인도의 정치적 목적으로의 활용 등 외교전략적 차원의 의미가 커짐에 따라 향후 한국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방콕협정은 UN산하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개발도상국 회원국간의 지역협정임. 본 협정은 1975년 5개국(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을 회원국으로 하여 1976년 발효하였으며,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혜 무역협정임.

- 지난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 1차 방콕협정 각료회의에서 방콕협정은 아·태 무역협정 (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발전시키는데 회원국 전원이 합의하였으며, 인도와 중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경제협약체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ESCAP 사무국은 협정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 확대를 꾀하고 있는 바, 현재 파키스탄⁴⁾, 이란, 몽고 등이 가입을 준비 중에 있고 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등도 협정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GSTP는 UN 산하기구인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한국, 인도를 포함한 44개 개도국간 특정품목에 대해 양허를 하고 있는 관세협정이며 한국과 인도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최근 제 3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GSTP는 모든 회원국이 아닌 참여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양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인도로부터의 수입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양허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제 22차 상임위원회에서 인도는 파키스탄이 방콕협정 가입에 앞서 인도에 대한 MFN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파키스탄의 방콕협정 가입 여부 결정은 다음 회의의 의제로 이월되었음.